

법 어

바람이 향기롭고 흐르는 물소리에도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저마다 지나온 시간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면, 우리에게 봄소식은 자연만물이 전해 주는 희망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단보 마애부처님 전에 성심으로 기도하며, 현시대에 처한 걱정과 불안을 떨어버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과 평화에 이르고자 정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불제자라는 종교의 범주를 넘어 유구한 민족의 후손으로서, 현시대의 잘못된 삶을 참회하게 하고 앞으로의 정진을 위한 성찰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긴 현장이기도 합니다.

낙단보 부처님의 눈을 통해 자연환경과 현시대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미래를 내다보고, 선조들의 지혜는 우리 사회와 시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라고 가르침을 주시는지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애사 기공식과 정성으로 올리는 수록재는 현시대가 파생한 갖가지 갈등을 천년의 지혜로움으로 순조롭게 해소하겠다는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가짐이며, 자애로운 가피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소중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덕과 인연으로 참배하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하는 길을 환하게 열어줄 것이며, 차별 없는 평등, 그리고 소통과 화합이라는 불교가 가진 수승한 정신문화를 고르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불자들의 큰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조화롭게 시대를 읽어가고 함께 손잡고 실천하는 지혜로 정진해 나아갑시다.

여느 교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전통문화가 갖는 유익한 가치를 현대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고운사의 열정은 종단의 모범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성취는 스스로의 마음에 복전을 일구는 일이자,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희망의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과 교구말사 사부대중의 원력과 신심에 거듭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의성출신의 법조인으로서 우리 고장의 향기와 불자의 자긍심을 당당하게 펼쳐가시는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진력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전통문화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시민의 유익함으로 나누겠다는 의미로써, 오늘의 불사를 빛나게 해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경북도의회, 그리고 의성군에 활력을 넣어가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최유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공덕이 의성군과 경상북도를 넘어 우리사회와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향기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4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